

# 지구 반대편과 상응한 전쟁·이주사를 조우하다

‘사라예보 40주년 윈터축제’ 초청 이매리 개인전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주제 내달 8일부터 3월8일까지 열려 개막 특별 프로그램 등 4개 파트 내달 9일 프레젠테이션·토론 참여 영상·사운드·드로잉 퍼포먼스 등

전쟁사를 예술로 접목한 ‘시(詩) 배달원’ 이매리 작가의 개인전이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광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작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열리는 ‘사라예보 40주년 윈터축제’에 초청돼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을 주제로 개막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진흥회의 국제협업지원 기금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역사박물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전시는 모두 4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먼저 다음달 7~12일 보스니아 컬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사라예보 40주년 겨울 축제 국제전’은 19개국 49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국적 네트워크 협업 전시를 통한 국제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하고 다양한 미학을 도출하는 자리다. 이 작가는 국제전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발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영상과 사운드, 드로잉 작업으로 ‘전쟁사’를 풀어낸 ‘이매리 개인전’은 다음달 8일부터 3월8일까지 보스니아 국립역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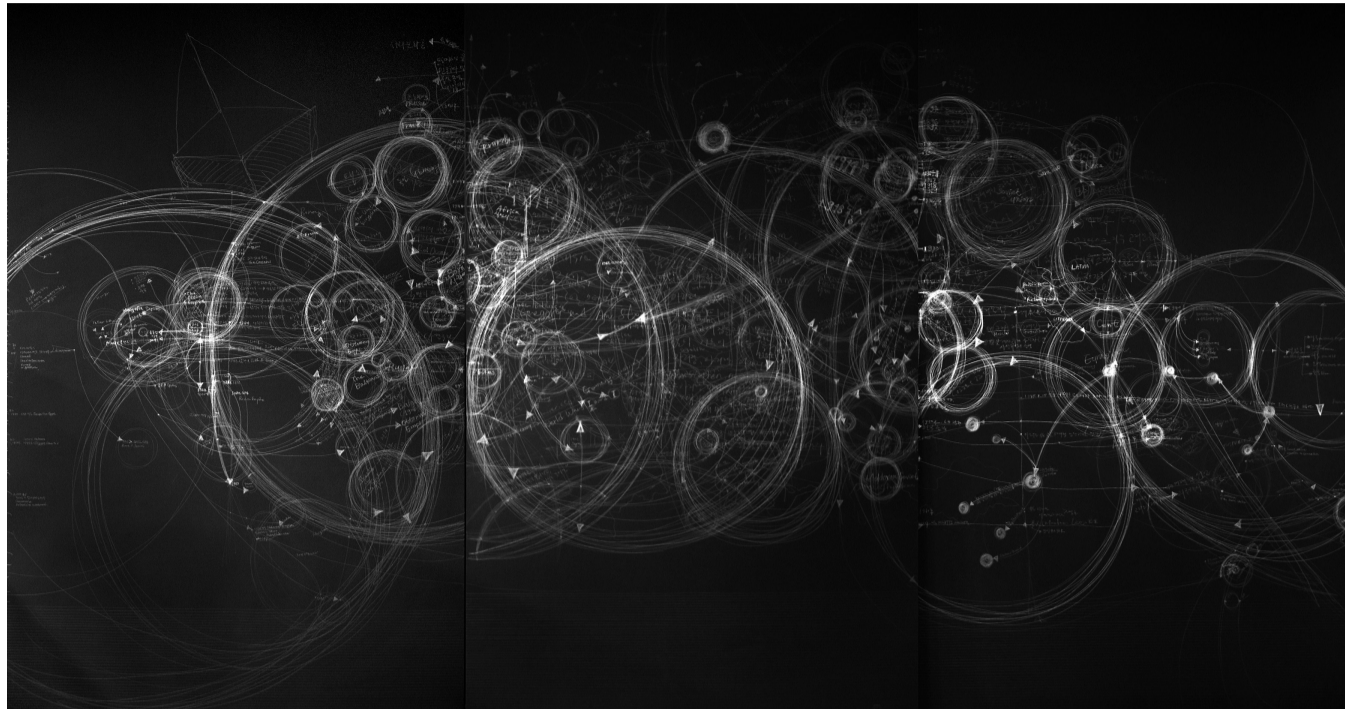
물관, Chaelama Depot 컨템포러리, BKC 보스니아 컬처센터에서 한달간 열린다. 특히 국제 작가들이 참여해 오버랩 작업을 통해 완성해 나갈 드로잉 퍼포먼스가 주목된다.

이어 다음달 9일 Chaelama Depot 컨템포러리, 사라예보 시립미술관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에 패널로 함께한다. 이날 영상 프레젠테이션 상영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프레젠테이션과 2차 리서치는 오는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보스니아 국립역사박물관, 사라예보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과 1992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지며 잔혹한 ‘인종 청소’가 자행된 ‘보스니아 전쟁’ 등이 벌어진 현장을 답사하고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라예보 40주년 윈터축제’에서 열리는 개인전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전시 ‘그들은 우리가 된다’에서 선보인 3개의 섹터 중 첫 번째 섹터였던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을 빼와 더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주제에 나온 ‘7천개의 별’이란 고려인마을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상징한다. 고려인들의 조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이들로 그 뿌리가 우리 동포인 셈이다. 고려인들이 난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피박한 삶을 조망하고 약속의 땅을 찾아 해매 도달한 곳이 광주였다는 것을 되짚는다.



이매리 작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인류사에 진행됐고 또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전쟁사는 이 같은 고려인들의 삶과 광주의 역사와도 상응한다.

사라예보는 전쟁사의 굵직한 사건의 발단과 인종 학살이 이뤄졌던 참혹한 역사가 숨 쉬는 현장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를 고려하면 이번 이 작가의 개인전은 그가 그동안 선보인 작품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미리 완성된 결과물을 전시 현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 현장 탐사를 통해 다국적 작가들과 협업해 아이디어와 작업을 결합해 완성해 나가는 점에서 특별하다. 기존의 영상작품들은 가져가지만, 보스니아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30여평의 공간에서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오

버랩을 통한 회화작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번 전시의 뿌리인 작품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은 인류의 이주사와 전쟁사적 관점에서 시작해 광주 안의 이주민들의 역사를 망라한 결과물이다.

전쟁은 오늘날에도 끝날 기미 없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그 예시다.

전쟁의 본질은 결국 수없이 많은 민간 희생자와 피난민들을 낳는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자 지역’의 90%가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거주지를 본인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민족이 여러 차례 겪어야

했던 과거를 상기한다.

이 작품은 세계 제 1·2차 대전, 각 나라의 내전, 분쟁,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사 등으로 얼룩진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자행된 시대사적 전쟁사들에 대한 Map(지도)이자 이를 드로잉적 방식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동시대 이민자들에게 대한 개인의 삶과 그들의 근원을 찾는 방법으로 제작한 기록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가는 “전 세계적 정세 불안과 혼란 속 전쟁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사라예보 시립미술관의 인적 네트워크링이 매우 좋아 밀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4일 설 명절을 맞아 임직원 80여명이 남광주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 설맞이 따뜻한 손길 건넨 광주·전남 문화계

전남문화재단, 134만원 성금 전달 제주항공참사 피해지원 위해 마련 광주문화재단, 장보기 행사 개최

설 명절을 앞둔 지난주 광주·전남 지역 문화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전남문화재단은 지난 2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134만원의 성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픔에 잠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4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남광주시장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새해 설맞이 범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마련됐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광주문화재단 임직원 80여명이 참여해 남광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명절 준비를 위한 음식과 물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가 담긴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 다채로운 장르 결합... ‘2025 ACC 브런치콘서트’

국악·재즈·무용·미술·뮤지컬 등 내달 26일부터 총 11회 공연

국악, 재즈, 클래식,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한 특별한 예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5 ACC 브런치콘서트’ 연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다음달 4일부터 관람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ACC 브런치콘서트는 관객들과 아름

다운 음악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감 만족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극장2에서 진행되는 ACC재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올해는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국악·재즈, 클래식·미술, 클래식·발레, 아트퍼포먼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결합을 통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총 11회의 연간 프로그램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총 50매(1인 2매까지 구매 가능)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정보는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욱 ACC재단 사장은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올해는 더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ACC 브런치콘서트는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 “광주예술의전당서 취재할 사람 모이세요”... 시민기자단 3기 모집

내달 3~14일 지원서 접수 글·사진, 영상 20명 이내 공연 관람 기회 등 혜택

광주예술의전당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시민기자단은 광주예술의전당 공식 온라인 채널에 다양한 공연 정보 및 문화소

식을 직접 취재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모집 분야는 글·사진, 영상 2개 분야로 모집인원은 20명 이내다. 문화예술공연에 관심이 많고 멀티미디어 콘텐츠(홍보 게시물,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광주·전남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기자단 활동은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소정의 원고료와 공연 관람 기회, 우

수 기자 시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신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yml12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9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062-613-8233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